

창업생태계 조성... 전북 스타트업 데이

유망 스타트업 스케일업 100 발대식 · 창업자 네트워킹 · 투자 IR · 법률 강연 · 창창자문단 총회 등 진행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는 23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창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스타트업 데이를 개최했다.

스타트업 데이는 전북자치도 유망 스타트업 스케일업 100 발대식, 창업자 네트워킹, 투자 IR, 법률 및 재무·회계 강연, 창창자문단 총회 등으로 구성 개최됐다.

스케일업은 스타트업의 규모 확대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용어로, '스케일업 100'은 도내 창업지원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선정된 유망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북자치도만의 스타트업 관리 프로그램이다.

선정된 기업은 TIPS프로그램, 벤처캐피탈 투자, 투자사 성장 멘토링, 커뮤니티 참여 등의 기회가 지원된다.

전북자치도는 최근 변화하는 창업정책 패러다임에 맞추어 창업기업의 양적 성장에 넘어서, 질적 성장을 추



23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열린 전북 스타트업 데이 행사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창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케일업 100 발대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하기 위해 스케일업 중심의 투자 창업생태계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발대식에서 김관영 지사는 "그동안

공공의 보조금 지원 중심이었던 국가의 창업정책이 민간 주도의 투자를 통한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

는 1조원 펀드를 조성하고, TIPS운영사 등을 적극 유치해 왔다"고 밝혔다. 발대식에 이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주관하는 스타트업 솔직 토크쇼가 개최됐다. 코스포는 지난 2018년 설립돼 현재 2,233여개 스타트업이 가입된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다.

창업가 솔직 토크에서는 테라릭스 김태영 대표, 코슬러스 김성현 대표, 플라스바이오 박성걸 대표, 크로프트 류희경 대표, 바이오드 강민 대표가 참여해 창업 간 겪고 있는 고충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며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코스포 최성진 대표는 "창업가의 고충은 창업가만이 이해 할 수 있다"면서 "지역 스타트업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수 창업전문가가 참여하는 창창(創昌)자문단 총회가 개최됐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직원들이 23일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한 사랑의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

“헌혈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해”

전북경진원, 사랑의 헌혈 운동 동참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 직원들이 23일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한 사랑의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

추운 겨울철에는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학교 방학으로 인해 단체 헌혈이 감소하여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혈액 부족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응급 환자나 위중증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을 실천하기 위해 추진한 이번 활동은 전북혈액원의 출장헌혈 차량의 도움

으로 실시하였다. 헌혈 운동에 참여한 경진원 한 직원은 "헌혈을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수혈받을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많은 분들이 헌혈 활동에 참여하였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진원 윤여봉 원장은 "사랑의 헌혈 운동에 동참한 우리원 직원들이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우리원은 헌혈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 상생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북자치도 · 바이오진흥원, 농생명 · 바이오지원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23일 바이오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도내 농생명·식품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농생명·바이오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열었다.

도내 농생명 관련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자치도와 바이오진흥원이 금년에 추진하는 농생명·식품기업 대상의 다양한 지원사업과 더불어 13개 유관기관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전북자치도 및 바이오진흥원은 23일 바이오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도내 농생명·식품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농생명·바이오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바이오진흥원 제공)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근 기업이 처해있는 저성장, 불확실성의 시대적 환경을 타파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을 역임한 민승규 세종대 석좌교수가 '창의적 발상전환과 농생명산업 혁신성장전략'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또한 설명회에서는 전북자치도와 바이오진흥원 및 전북중기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역협회, 농업기술진흥원 등 유관기관의 주요 지원사업이 총망라된 소개책자를 현장에서 배포했다. /김옥기 기자

동시에 바이오진흥원과 유관기관 12개 분야에 대한 상담소가 차려져 기업 측면에서 궁금한 사항과 현안, 애로사항에 대한 분야별 기관 전문가의 현장 상담도 동시에 진행되어 참가기업의 만족도를 높였다.

전북특별자치도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인건비 상승과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지역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도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전북자치도와 지원기관들이 협력을 통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 토양오염도, '매우 양호'

전북지역 88개 지점, 법적 기준치의 약 0.8~33.3% 수준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전북지역에 운영중인 토양 측정망 88개 지점에 대한 2023년도 조사결과, 모든 지점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토양측정망은 토양오염 실태 및 오염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에 약 2,000개, 전북지역에 175개 지점이 운영중이다.

올수년에 88개소, 작수년에 87개소를 각각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전북지역 8개 시·군의 토양(88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중금속 8종, 일반항목 14종, 토양산도(pH) 등

총 23개 항목을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불소는 법적 기준치인 토양오염 우려기준 대비 33.3%, 카드뮴, 구리 등 중금속 항목 7종은 0.8~18.1%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외 6가크롬(Cr6+), 유기인화합물, 시안, 페놀, 벤젠, 톨루엔 등 14개 항목은 전 지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허재희 측정분석과장은 "전북지역 토양오염도는 전국 대비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양오염 조사를 통해 토양환경 보전과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중기청, 2024년 수출바우처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 이하 전북중기청)은 23일부터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내수(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달러 미만 기업), 초보(전년도 수출액 1,000~10만달러 미만), 유망(전년도 수출액 10~100만달러 미만), 성장(전

년도 수출액 100~500만달러 미만), 강소(전년도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 단계로 나눈다. 수출규모에 따라 3천만 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1차 모집에서는 2,400여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의 주요 특징으로 올해도 수출국 다변화 지표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20%→30%)한다. 2023년 수출바우처 참여 후 새로운 국가로의 수출에 성공한 '수출다변화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바우처 지

원한도를 20% 확대하여 신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바우처 선정기업들은 해당 바우처를 통해 항공·해상 운송료 등의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류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하여 각 분야 수출 유망기업을 공동발굴·지원하는 '부처협업형 수출바우처' 사업을 확대한다.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 전년도 수출액이 10만달러

이상인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20여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정책자금 등 각종 금융지원을 우대한다.

수출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 23일부터 2월 13일까지 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에서 통합 신청할 수 있다.

수출기업 지정제도인 글로벌강소기업 1,000+프로젝트에만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옥기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